

## 법의 날 수상자, 법조계 인사 오찬

법과 현실이 합치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의 날을 오늘로 정하고 이렇게 모이고 포상하는 데는 중요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 보단 함께 모시고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인사하면서 한분씩 뵈 때마다 제가 법률 공부할 때 읽었던 책을 지으신 분들도 있었고 판사 생활 시작할 때 업무를 수습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평소 존경하는 법조계 선배들을 뵈게 되어 기쁩니다. 또 후배 법조인들도 함께 와계십니다. 그분들 뵈어나도 제법 중견법조인이고 선배 축에 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임하게 되어 기쁩니다. 뜻을 담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 법과 현실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법과 현실이 되도록 가까이 합치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혁이란 말을 붙여서 정치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법조계 사람들에게는 법과 현실이 괴리된다는 것이 모욕이나 수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몇몇한 사회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엔 법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이 힘 있는 사람들 편에서 자신들을 구박하고 홀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자도 약자도 법이 내편이라고 느낄 수 있는 법과 법 운영 현실이 되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법 현실과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뜻도 중요하고 법조계 선후배 모시고 대화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